

챗gpt도 아는 저출산 해법



김승호의
시선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복잡하고 만병통치약이 없다.”

요즘 유행한다는 챗gpt에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해법이 있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답이다. 다정하게도 챗gpt는 여기서 답변을 끝내지 않았다.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고 보다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가 취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은 ‘몇가지 조치’로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유연 근무제도와 및 일·삶의 균형 확립 ▲보육 지원 개선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저렴한 주택 공급 및 주거 비용 완화 등을 제시했다.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부부가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거

나 늘어난다. 우린 그 3분의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2021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이미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은 1년 사이 더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다. 소위 선진국에 속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때 저출산·고령화의 상징으로 꼽혔던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아기 울음 소리가 적게 난다.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낳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 왜 힘들까.

챗gpt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랬더니 “한국 정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기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및 보육 지원 확대와 같은 몇가지 정책을 폈지만 이런 노력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역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와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갖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면서 공무원이 저출산 해결책을 찾는 어떤 토론장에서나 했을 법한 뻔한

이야기를 꺼냈다.

모르긴 몰라도 사람이나 AI나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일 것이다.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테니 말이다. AI가 사람을 ‘디스(diss)’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인구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한다. 근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해법을 내놔야한다. 더이상 미룰 일도 아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한 시절을 품미했었다. 깊은(?) 고민끝에 나왔을 그 문구는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에게 위원회 소속 한 위원을 소개하면서 “(결혼을 안해)저출산을 담당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 문재인 정부도 거기까지였다.

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저출산·고령화에 관련한 제발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고민만하다 좀 지치 말고 해법을 모를땐 AI에게라도 물어봐라.

/bada@metroseoul.co.kr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택시요금인상’



기지수첩

최빛나
(산업부)

서울 택시요금 인상이 시행된지 약 2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큰 개선은 없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택시 대란을 해소하고자 2019년 이후 4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했다.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기사 수입과 택시 공급이 함께 늘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순환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지난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시간과 심야 시간 대 택시 공급과 수요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업계 내 불멘 소리가 가득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라고 주장한데 따른 결과다.

일환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 시켰지만 택시 시장 회복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택시 부재 해제와 심야 할증 확대, 공급, 수요 확대를 위해 요금인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섰다. 이에 서울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랐고, 운행에 따른 기본 거리가 2km에서 1.6km로 줄었다.

업계 대부분은 요금 인상 시행으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되면서 혼란만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택시가 추가로 도심에 넘쳐나면서 과잉 공급 사태가 생겨났다. 또한 주말, 심야에만 택시가 몰리면서 정작 수요가 적은 시간대는 택시를 잡기가 힘들어졌다. 앱을 이용한 택시 잡기 경쟁이 불붙으면서 가맹, 비가맹간의견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공공요금과 물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택시 대란이었던 오후 11시부

터 새벽 2시사이에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은 줄었고 거리엔 일명 ‘갈뺑’하고 있는 택시들이 넘쳐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인상으로 인한 앞서 부작용은 택시업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한다. 수익 상승을 위해 요금인상을 단행했지만 정작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

정부와 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에도 국민들의 불만과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즉각 대안책을 마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만이 수익 효과에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이같은 계륜인 상황 속 택시 요금 인상안이 어떤 또 다른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된다.

/vitna@

오늘의 운세

3월 13일 (음 2월 22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저축으로 불의의 근심을 방지. **48년생** 아흔 아홉 삼 가진 사람이 한섬 가진 사람에게 꾸어 달라한다. **60년생** 부귀는 들고 도니 자신의 실천어부로 결정. **72년생** 술을 적게 마시면 실수가 적어진다. **84년생** 취미가 정해질 것.



소

37년생 거울을 보니 이태백의 백발삼천장(白髮三千丈) 시가 생각. **49년생** 말날이나 말조심. **61년생** 투기만을 도모하면 가난은 이미 싹트고 있는 중. **73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85년생** 기쁨이 넘치는 순간 근심이 다가온다.



호랑이

38년생 초월자나 절대자는 사람과 다른 형상으로 존재하는가. **50년생** 오늘은 유난히 바쁜 날이다. **62년생** 먼 길을 돌아서 원점으로 복귀. **74년생** 영업의 실적에서 이득이 보이니 실망하지 않도록. **86년생** 내 마음은 호수 같이 평온.



토끼

39년생 좋아하는 일을 맡게 된다. **51년생** 까닭 없이 아들집을 찾아가서 머느리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63년생** 정신의 세계가 중요하듯 물질도 중요. **75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뎌라. **87년생** 하루 먹는 양은 많아야 세끼인데.



용

40년생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52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처면 언제나 용기가 된다. **64년생** 평온한 바다를 떠다니는 기분. **76년생** 인생전체를 놓고 보면 적성도 중요하지만 직업이 있어야. **88년생** 지난일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뱀

41년생 길이 막혔으니 새로운 길을 모색. **53년생** 이성문제는 스스로 억제해야. **65년생** 나무자주 만나면 친한 사이도 도리어 멀어진다. **77년생** 실적을 위해 친구들과 노는 것은 포기. **89년생** 퇴근하고 미장원까지 파마머리를 해본다.



말

42년생 술을 마시면 취하는 게 당연하니 자제를. **54년생**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다. **66년생**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78년생** 뛰다보면 가슴 벅찬 행복이 온다. **90년생** 직장에도 도리를 하면서 개인일도 신경.



고양이

43년생 처세에 어두운 사람도 있기 마련. **55년생** 가정사의 대사를 치를 때는 반드시 길한 날을 잡았다. **67년생** 맑은 풍속을 따라야 생활이 들뜨지 않는다. **79년생** 같은 유의 사고는 왜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91년생** 행동으로 보여줘라.



원숭이

44년생 최소한 한 가지 일에는 능통해야 한다. **56년생** 상처도 시간이 가면 새살이 돋는다. **68년생** 부동산문제는 시대 탓으로 질곡에 빠지면 우울증 온다. **80년생** 5시이후 차량안전주의. **92년생** 개운이란 신비롭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닭

45년생 충동적인 과소비를 조심. **5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69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81년생** 사건에 대해 이성점을 찾아야. **93년생** 점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개

46년생 세상에 나쁜기만 한 일을 없구나. **58년생** 인생의 수업료 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자. **70년생** 머리에 저장을 해야 미래의 후원자가 될 뉘. **82년생** 이순신장군은 주역에 익숙한 군인이다. **94년생** 집나가서 민망한 일을 조심.



돼지

47년생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 **59년생** 누구에게나 비취주는 태양에 감사. **71년생** 내가 투자한 것인저 도박을 한 것인지 되돌아보라. **83년생** 황제 윤이 있으니 부모님의 재산 중여도 있다. **95년생** 변명과 사과의 여지도 없이 뻔뻔하지는 말자.

김상회의四季

사주학 풀이 ⑭



오늘 경오일庚午 말날이다. 사람에게 이로운 동물이 많지만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기로는 마소가 으뜸이다. 말을 셀 때는 ‘필’이라하고 소를 셀 때는 마리라 했다. 말은 야간에 옥강 한필에 해당하는 거리의 시력을 가졌고 소는 한 마리에 해당하는 거리밖에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옛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야간에 기습을 할 때는 말을 이용했고 소는 썰이나 마차위에 붙드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적진에 투입시켰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소는 뒤돌아 설줄 모르니 적군에게는 곤혹스러운 대상이었다.

이렇게 유용한 두 동물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다. 마차에 소와 말을 함께 묶어 끌게 하면 제자리만 뱅뱅 돌고 만다. 서로를 사납게 대하며 갖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한다. 그래서인지 마우馬牛를 동시에 쓰는 성어에는 예외 없이 보잘것없는 뜻이 담겨있다. 일례로 학식이 없거나 예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해 이르는 말로 마우금거馬牛禁?가 있다. 도리에 어긋나는 경우를 두고 썰이 없는 송아지와 썰이 있는 말의 뜻으로 동우각마童牛角馬로 비유하기도 한다. 대개 말은 개와 짝을 이루어 충충을 나타내는데 소는 개와 짝을 이루지 못하고 광狂의 공통분모만 성립된다. 인오寅午와 오술午戌은 얼핏 같아보여도 속뜻이 크게 다르다. 앞은 사사死死의 포태胞胎 조합이고 뒤는 양왕養旺이다.

인오는 마치 마이동풍馬耳東風과 같고 오술은 견마지충犬馬之忠 또는 구마지심狗馬之心의 공功으로 나타난다. 축술丑戌은 광견광우狂犬狂牛의 재앙을 초래하기도 한다. 말은 원숭이와도 어긋난다. 신申과 우牛는 쌍방이 욕욕浴敗에 놓이는 까닭이다. 날뛰는 말과 떠드는 원숭이는 진정시키기 어려운데 번뇌와 정욕情慾으로 마음이 흐트러져 억누를 수 없는 지경을 두고 의사심원意馬心猿이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4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4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의 놀이터**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8		2				
			7					6
7		6	5					1
	2						3	
	3						1	
6					4	9		8
4				8				
			7		2			

9	6							
				5			2	4
				7			6	
8	4	9				2	1	6
	7							
	2			3				
6	9		7				8	7

정답

7	9	2	5	1	6	8	3	4
6	1	8	9	2	5	6	7	
8	5	6	7	8	1	2	3	9
5	1	9	2	6	7	1	8	3
2	7	8	1	5	8	1	9	6
6	8	1	9	1	8	7	2	5
1	2	8	6	8	9	9	7	1
9	8	5	8	7	1	6	1	2
1	6	7	1	2	9	8	5	8

1	8	7	6	9	2	1	5	8
2	8	9	1	7	1	8	6	9
1	6	9	8	8	9	1	2	7
8	9	8	2	6	7	9	1	1
9	1	2	1	5	8	6	7	8
6	7	1	9	1	8	2	8	9
5	9	1	8	1	6	7	8	2
7	2	6	5	8	9	8	1	1
8	1	8	7	2	1	9	9	6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